

1주차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Memento Mori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10월 7일(금요일) / 장 소 : 참가자대표 집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희	학번		이름	
	학번	2015	이름	박○규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조○환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data-bbox="509 719 660 752">[토의 방식]</p> <p data-bbox="509 808 1393 1144">▶ 토의는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과 웰빙, 웰다잉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한 질문 위주로 진행되었다. 보고서에는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은 제외하고 웰빙과 웰다잉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한 질문들과 그에 대하여 우리 팀이 도출해낸 해답들을 작성하였다. 또한 선정한 두 도서 모두 사후 세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으나 팀원 모두 각자 사후세계에 대한 입장이 달랐기에 모든 질문에 대해 사후세계 존재 여부에 대한 관점별로 최대한 나누어 생각해 보았다. 토의는 웰빙과 웰다잉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 시작한 모임인 만큼 팀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진행되었다.</p> <p data-bbox="509 1196 1393 1525">○희 : 저자는 육체적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라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추측일 뿐 확실한 사실은 아니다. 그 또한 육체적 죽음이 우리 삶의 끝이라는 주장에 확신할 순 없다고 말하고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의 다시 산다는 것 이란 도서를 접한 이후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을 평소 해왔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논하기 전에 육체적 죽음 이후 우리의 삶의 지속 여부에 대한 각자의 관점에 맞춰 웰빙과 웰다잉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하고 싶다.</p> <p data-bbox="509 1576 1393 1738">○규 : 좋은 생각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 죽음 이후 우리의 삶이 지속될 수도,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직접 죽음을 체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비해 미리 논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p> <p data-bbox="509 1789 1393 1995">○환 : 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긴 한다. 그러나 듣고 보니 모든 상황에 대비해 미리 논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단 생각이 든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때 미리 준비했을 때와 준비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는 크니까. 그렇다면 육체적 죽음이 우리 삶의 끝인지 아닌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다.</p>							

[선정도서] 셸리 케이건, <죽음이란 무엇인가>, 엘도라도, 2012

제1장 : 삶이 끝난 후에도 삶은 계속되는가

제2장 : 영혼은 존재하는가

제3장 : 육체 없이 정신만 존재할 수 있는가

[토의 내용]

Q1. 육체적 죽음이 우리 삶의 끝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희 : 저자는 육체적 죽음 이후 영혼이 살아남더라도 영혼 또한 뒤늦게라도 육체적 죽음 이후 서서히 죽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육체적 죽음이 우리 삶의 끝이라고 주장한다. 그 외 다양한 근거를 읽다 보면 육체적 죽음 이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더라도 짧은 시간 내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러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환 : 육체적 죽음이 곧 우리 삶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난 이 유일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종종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을 쓰곤 한다. 우리의 살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규 : 그런데 어떤 것이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꼭 삶을 알차게 활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알뜰하게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치 없는 삶인가? 그리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희 : 듣고 보니 그렇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바쁘게 끝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옳은 삶이라고 한 것은 내가 그런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한정된 자원인 우리의 삶을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 나가는 것은 어떨까?

○환 : 그렇다면 '육체적 죽음과 동시에 우리 삶의 끝을 마주하기 전 한정된 희소 자원인 우리의 삶을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 나가야 한다.'로 마무리하고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모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규 : 동의한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큰 틀만 잡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을 좀 더 읽은 후 충분히 생각하고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희 : 그럼 이번에는 삶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을지 논의해 보자.

요약 : 육체적 죽음이 우리 삶의 끝이라면 우리는 한정된 희소 자원인 우리의 삶을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 나가야 한다.

Q2. 삶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계속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

○규 : 나와 우리 부모님은 아니셨지만, 친가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기에 주로 대화 주제가 종교였다. 그중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지 항상 질문하며 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희 : 종교적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사후세계와 신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며 준비하는 것이 옳을 수 있겠다. 그러나 나 같은 경우에는 무교에 가까우며 그 어떠한 종교적 신념도 없다. 물론 신이 존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하지만,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회의적이다. 그런데 다양한 매체와 서적들을 탐독하다 보니 사후세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적도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막연히 천국을 가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사후세계에 대해 보다 깊이 공부하며 나의 사후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 천국은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지만 사후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천국 가기 위한 방법처럼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는 힘들기에 먼저 선행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들은 내가 시중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환 : 육체적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나에게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이다. 그렇다면 삶을 사는 동안에는 삶을 항상 한정된 자원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 나가며 살고 사후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이 천국이면 아니면 그냥 사후세계이든.

요약 : 삶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삶을 사는 동안에는 삶을 항상 한정된 자원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 나가며 살고 동시에 사후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활동사진



2022년 10월 7일

참가자대표 : 김○희

2주차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Memento Mori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10월 28일(금요일) / 장 소 : 비대면(구글MEETS)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희	학번		이름	
	학번	2015	이름	박○규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조○환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선정도서] 셸리 케이건, <죽음이란 무엇인가>, 엘도라도, 2012</p> <p style="margin-left: 40px;">제4장 :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가 제5장 : 나는 왜 내가 될 수 있는가 제6장 : 나는 영혼인가 육체인가 인격인가</p> <p>[토의 내용]</p> <p>Q3. '나'는 왜 내가 될 수 있는가?</p> <p>○규 : 항상 궁금했다. 나는 왜 나인지. 다들 '나'가 왜 내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나의 인격이 가장 나의 정체성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육체는 그저 껍데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영혼 같은 경우에는 환생 연구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이며 버지니아 의과대학의 교수로 오래 재직하기도 한 이안 스티븐슨 박사가 조사한 사례들을 예로 들고자 한다. 그의 저서 <Twenty Cases Suggestive of Reincarnation(환생을 암시하는 20가지 사례)>를 보면 전생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들이다. 그러나 이 아이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서서히 전생의 기억을 잊는다. 나는 이 경우 이 아이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 영혼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소멸된 건지 혹은 그저 과거의 기억을 잊은 것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애초에 영혼이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같은 영혼임에도 육체가 바뀌며 예전의 기억이 사라지고 현재 육체에서 있었던 기억만 지니며 살게 된다면 육체와 마찬가지로 영혼 또한 새로운 삶을 살며 예전의 인격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인격을 잠시 담게 될 껍데기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p> <p>○환 : 질문부터 굉장히 심오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한다. 철학과 교수답게 장마다 끝없이 질문을 던진다. 나는 아직 3가지 중 어느 것이 '나'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p>							

○희 : 저자는 '나'라는 존재가 갖는 정체성을 영혼, 육체, 인격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3가지 중 어느 것이 나의 정체성이냐 묻는다면 찬규님과 같은 답변을 할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찬규님과 살짝 다르게 '기억'이 곧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저자는 인격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나의 인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나의 영혼과 육체가 죽는다 해도 상관없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영혼이 죽어도 다른 육체와 영혼에 나와 비슷한 인격이 들어가 유지되어 내가 추구하는 가치만 얻을 수 있다면 만족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저자는 기억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자신의 인격이 추구하는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만 얻을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인격'과 '가치'보다는 '기억'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살아가는 것이 곧 인간이다. 나의 정체성은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 왔는지 등을 기억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치는 내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온 기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부산물일 뿐이지 나의 정체성이 될 순 없다고 생각한다. 그저 성격이 비슷하다고,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하다고 그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된다면 성격과 추구하는 가치가 나와 동일하게 입력된 로봇과 내가 다를 것이 무엇인가. 나의 기억이 나의 인격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만들어 내고 그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된다. 그것이 내 결론이다.

○규 : 생각해 보니 나의 인격이 나의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나의 기억이 나의 인격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환 : 나도 기억이 나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가치 또한 내가 겪은 경험과 기억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 전부 나의 기억과 경험에서 오는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사실 영혼과 육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내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부분이다. 그 때문에 기억이 곧 나의 정체성이란 입장에 크게 공감하는 바이다.

요약 : 나의 기억이 나의 인격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만들어 내고 그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되어 '나'가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

활동사진

--	--

2022년 10월 28일

참가자대표 : 김○희

3주차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Memento Mori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11월 4일(금요일) / 장 소 : 참가자대표 집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희	학번		이름	
	학번	2015	이름	박○규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조○환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선정도서] 셸리 케이건, <죽음이란 무엇인가>, 엘도라도, 2012</p> <p>제7장 : 죽음의 본질에 관하여 제8장 : 죽음에 관한 두 가지 놀라운 주장 제9장 : 죽음은 나쁜 것인가</p> <p>[토의 내용]</p> <p>Q4. 죽음이란 무엇일까?</p> <p>○환 : 저자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등 사람이 하는 모든 기능을 P 기능이라고 정의하였다. 죽음이란 이 P 기능이 멈추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뇌사 또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p> <p>○규 :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나?</p> <p>○희 :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깨어나 삶을 다시 되찾는 경우가 많으며 의식을 잃었다고 여겨진 환자가 누워 있는 동안 주변의 소리와 상황을 인지해 왔던 경우도 상당하다. 이 경우 P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기에 식물인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p> <p>○규 : 그렇다면 모두 인간이 스스로 P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죽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p> <p>○희 : 동의한다.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나 스스로 할 수 없을 때가 곧 나의 죽음이 찾아온 순간이라고 생각한다.</p> <p>○규 : 남들에게 잊혀졌을 때가 곧 내가 죽는 순간이라는 말도 잊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는가?</p>							

○희 : 내가 잊혀졌다는 것은 내가 그 누구에게도 기억될 수 있을 만한 활동을 못 하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내가 현재 P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를 기억해 줄 또 다른 누군가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P 기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또다시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이러나저러나 P 기능의 종말이 곧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규 : 그렇다면 만약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희 : 저자가 말한 대로 그 경우에는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곧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약 : 육체적 죽음이 우리 삶의 끝인 경우 죽음이란 먹고, 마시고, 잠 자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등 인간이 하는 모든 기능을 칭하는 P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삶이 이어지게 된다면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뜻한다.

Q5. 좋은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가?

○희 :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와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답변이 달라질 것 같다.

○규 : 그리고 죽음과 죽음까지의 과정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희 : 맞다. 죽음까지의 과정이 두려운 것이지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며 안 아프게 안락사하고 싶단 얘기를 많이 한다.

○환 : 그렇다면 좋은 죽음이란 고통스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맞이하는 죽음일 수도 있겠다.

○희 : 그렇게 따지면 고통스러운 과정 끝에 맞이하는 죽음은 고통의 끝을 가져다주기에 좋은 죽음이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 죽음이 곧 선물이 된 경우 아닌가?

○규 : 저자가 소개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글을 보면 '그러므로 가장 끔찍한 불행인 죽음은 사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

리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한 죽음은 우리와 아무 상관 없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든 이미 죽었든 간에 죽음은 우리와 무관하다.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없고 죽었을 때는 우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라고 적혀 있다. 나는 이 문구에 굉장히 공감되었다. 우리가 살아 있다면 죽음은 우리와 상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에 죽음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될 수 없다. 도희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선물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환 : 그런데 죽음이 살아 있는 우리에게 정말 상관이 없을까? 죽어가며 우리는 대부분 고통을 느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슬픔과 함께 고통 또한 느낀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죽음이 무관하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장수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죽음은 분명 나쁜 것이 될 것이다.

○희 : 생각해 보니 죽어가는 과정 중에 느끼는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비롯된 슬픔과 고통, 삶이 너무 짧음을 안타까워하는 상황 모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겪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규 : 그렇다면 '자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삶 속에서 끝없는 고통을 겪다 자살한 경우 자살자들은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다.

○희 : 자살자들에게는 자살이 좋은 죽음도 나쁜 죽음도 될 수 없다. 존재 자체가 사라지니 좋고 나쁨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살자들의 유가족들에게는 끝없이 고통스러운 나쁜 죽음이 될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삶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좋은 죽음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단 생각은 든다. 그러나 만약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빨리 사후세계에 대해 명확히 규명해 줄 학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통을 주는 방법보다는 그 상황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방법을 택하겠지만 그 상황에 매몰된 순간에는 자살밖에는 떠올리지 못하게 되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요약 : 죽은 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죽음은 좋을 수도 없고 나쁠 수도 없다. 죽음은 오직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며 그들에게는 나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죽음과 죽음의 과정에서 찾아오는 고통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활동사진



2022년 11월 4일

참가자대표 : 김○희

4주차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Memento Mori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11월 11일(금요일) / 장 소 : 참가자대표 집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희	학번		이름	
	학번	2015	이름	박○규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조○환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선정도서] 셸리 케이건, <죽음이란 무엇인가>, 엘도라도, 2012</p>							
	<p>제10장 : 영원한 삶에 관하여 제11장 :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p> <p>[토의 내용]</p> <p>Q6.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영생은 좋은 것인가?</p> <p>○희 : 나는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외모가 늙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만약 외모도 늙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미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영생하고 싶을 것 같다.</p> <p>○규 : '단순히 영생은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가 없다. 고려할 점이 너무 많다. 만약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평생을 영생할 수 있다면 나는 영생을 택하고 싶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내가 영생할 수 있는 몸이라고 해도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2018년도에 영국 BBC 뉴스를 통해 146세로 세계 최장수 르바흐 고토(Mbah Gotho) 할아버지에 대해 보도했는데 고토 할아버지의 평생소원이 죽는 것이라고 했다. 고토할아버지는 의도치 않은 장수로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낸 후 평생을 우울증 속에서 살았다고 한다.</p> <p>○희 : 확실히 가족들이 전부 나보다 먼저 떠난다면 장수하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프랑스 철학자인 몽테뉴 역시 노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고통과 괴로움과 비참함에 중지부를 찍어주는 죽음을 축복이라고 말했다. 노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고통은 건강 문제만이 아니다. 외로움도 포함되어 있다.</p> <p>○환 : 저자는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며 영생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모든 삶'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나쁜 것'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은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수십 년 동안에도 수많은 지루함을 겪는다. 그 지루함을 수백 년, 수천 년동안 겪는다고 하면 아연실색하게 된다.</p>							

○규 : 중요한 것은 영생이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를 따지기 전에 영생을 누리도 좋을 만한 형태의 삶이 존재하느냐 같다.

○희 : 그리고 과연 영생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해도 실제로 영생을 살 사람은 얼마나 될까? 현재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은 100년도 채 안 된다. 그런데도 이런 짧은 귀한 삶에 미련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현시대에 영생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영생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이냐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고 본다. 찬규님의 의견대로 영생을 누리도 좋을 만한 형태의 삶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가 핵심 문제인 것 같다.

○환 : 동의한다. 또한 이 문제는 사후를 따지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인다.

요약 : 중요한 것은 영생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가 아닌 영생을 누리도 좋을 만한 형태의 삶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다.

Q7. 가치 있는 삶이란?

○희 : 저자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을 가져다준다는 사실 때문에 가치 있는 것,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예시로 돈, 아이스크림, 먹을 때의 즐거움을 제시했다. 우리는 앞서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들로 삶을 채워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저자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을 명쾌하게 분류해 주고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환 : 하지만 저자도 말했듯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은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고 그 과정이 매우 힘들다. 본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면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질 수 있으며 삶의 의욕 또한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희 : 그렇다면 돈이나 아이스크림 등 '도구적 가치'들을 얻음으로써 느끼는 삶의 작은 쾌락들을 조금씩 맛보며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면 된다.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며 따라올 수 있는 좌절감과 그 밖의 부정적 결과들은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도구적 가치로 충분히 보완하거나 잠재울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교육 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상장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래에 원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 모든 욕구를 참고 학업을 이어 나가며 스스로를 발전시킨다. 그러나 학생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너무나 먼 미래에 있고 그 긴 시간을 참으며 스스로를 다듬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다.

이에 교육자들은 학기 내 여러 번씩 대회를 열고 상장을 수여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독려한다. 이에 학생들은 지치지 않고 무사히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한 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원하는 삶을 산다. 이 경우에는 '상장'과 '대학'이 '부가적 가치', '원하는 삶'이 '본질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다. 부가적 가치인 상장과 대학으로 과정 속에서 성취감과 쾌락을 느끼며 본질적 가치인 '원하는 삶'에 도달한 것이다.

○규 : 그렇다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 중 도구적 가치를 통해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다 결국 본질적 가치를 얻는 것과 동시에 본질적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환 : 동의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행복을 느낀다. 따라서 행복을 논하기 전,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를 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약 : 가치 있는 삶이란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도구적 가치를 통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다 결국 본질적 가치를 얻음과 동시에 본질적 행복 또한 얻게 되는 삶이다.

활동사진



2022년 11월 11일

참가자대표 : 김○희

5주차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Memento Mori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11월 18일(금요일) / 장 소 : 참가자대표 집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희	학번		이름	
	학번	2015	이름	박○규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조○환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선정도서] 셸리 케이건, <죽음이란 무엇인가>, 엘도라도, 2012</p> <p>제12장 :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무거움 제13장 : 죽음을 마주하고 산다는 것 제14장 : 자살에 관하여: 죽음의 선택인가 삶의 포기인가 에필로그 : 다시 삶을 향하여</p> <p>[토의 내용]</p> <p>Q8.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에 직면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p> <p>○희 :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은 우리가 1주 차 때 나눈 질문과 매우 유사하다. 우리는 그때 '육체적 죽음이 우리 삶의 끝이라면 우리는 한정된 희소 자원인 우리의 삶을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 나가야 한다.'고 하였고 '삶이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삶을 사는 동안에는 삶을 항상 한정된 자원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 나가며 살고 동시에 사후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p> <p>○환 : 저자는 죽음의 특성을 반드시 죽는다는 '죽음의 필연성', 얼마나 살지 모른다는 '죽음의 가변성',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편재성'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물론 죽음과 삶의 부정적인 상호효과도 존재하겠지만, 죽음의 특성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삶에 있어서 긍정적인 상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존재라는 자각을 하며 삶을 더욱 주의 깊게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 죽음이 존재함으로써 삶은 일시적이고 가치 있는 것이 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해야 한다.</p> <p>○희 : 맞다.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 스크루지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괴팍하고 인정 없는 성격의 스크루지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유령을 통해 외롭고 처량하게 죽음을 맞이한 자신의 미래를 경험하</p>							

게 된 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죽음을 경험한 후 스크루지는 인정 많은 이웃이 되어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이웃들도 그를 사랑하게 된다. 죽음을 직면한 후 스크루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긍정적으로.

○규 : 그 동화는 우리에게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교훈을 준다고 생각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크리스마스 캐롤의 주인공 '스크루지'의 인생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

○환 : 죽음에 직면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한 해답은 '스크루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확한 해답은 우리가 1주 차 때 낸 해답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희 :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 질문들에 낸 해답들로 보완하면 될 것 같다.

요약 : '스크루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존재라는 자각을 하고 죽음이 존재함으로써 삶은 희소성 있고 가치있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활동사진



2022년 11월 18일

참가자대표 : 김○희

6주차 북클럽 운영보고서(결론)

북클럽 팀명	Memento Mori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11월 25일(금요일) / 장 소 : 참가자대표 집							
참석자 명단	학번	2021	이름	김○희	학번		이름	
	학번	2015	이름	박○규	학번		이름	
	학번	2020	이름	조○환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 style="text-align: center;">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선정도서] 한림대학교 생사학연구소, <가치 있는 삶과 좋은 죽음>, 박문사, 2018</p> <p>1부 : 가치 있는 삶 2부 : 좋은 죽음</p> <p>[토의 내용]</p> <p>Q9. 우리가 생각하는 웰빙이란? (두 권의 책을 읽고 난 후)</p> <p>○희 : 우리가 지금까지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웰빙이 무엇인지 우리만의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오늘 함께 그동안 선정한 질문들을 통해 낸 해답들을 정리하여 결론을 낸 결과이다. 여기에 오늘 읽은 <가치 있는 삶과 좋은 죽음>에 담긴 내용을 더하면 어떨까?</p> <p><i>결론 : 나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존재라는 자각을 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산다. 그 가치 있는 삶이란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도구적 가치를 통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다 종래에는 본질적 가치를 얻음과 동시에 본질적 행복 또한 얻게 되는 삶이다. 또한 동시에 죽음의 과정에서 찾아올 수 있는 고통과 사후를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 (사후의 삶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i></p> <p>○환 : 가치 있는 삶에 '나'만을 생각하지 않는 따뜻한 세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동감'을 포함시키고 싶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감은 기본적으로 타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동감은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나뿐만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p> <p>○규 : 난 종교를 믿진 않지만, 친척들의 영향으로 종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이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종교인의 경우 그 본질적인 가치가 종교일 수도 있다. 또한 종교는 본질적</p>							

가치인 동시에 도구적 가치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 이수인 한림대학교 생사학 연구소 연구교수는 신앙심은 죽음의 위기나 이별과 같은 고통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이겨내고 고통조차 의미 있는 삶의 한 부분으로 승화시키는 힘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본질적 가치를 위해 신의 뜻을 추구하며 병자와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하며 행복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 경우 종교가 본질적 가치로서도, 도구적 가치로서도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치 있는 삶이 종교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시로 종교인으로서의 삶 또한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다.

○희 : 그렇다면 '가치 있는 삶'을 '동감'이 가미된 가치 있는 삶'으로 수정하고 그 예시로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들 수 있겠다.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다.

결론 : 우리가 생각하는 웰빙이란?

1. 나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존재라는 자각을 하며 동감이 가미된 가치 있는 삶을 산다.
2. 그 가치 있는 삶이란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도구적 가치를 통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다 종래에는 본질적 가치를 얻음과 동시에 본질적 행복 또한 얻게 되는 삶이다. (예시로 종교인의 삶을 들 수 있다.)
3. 동시에 죽음의 과정에서 찾아올 수 있는 고통과 사후를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 (사후의 삶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다."

Q10. 우리가 생각하는 웰다잉이란?

○희 :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낸 논의한 내용은 대부분 '웰빙'에 대한 내용들이라 곤란했는데 이 책에 웰다잉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해 주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규 : 맞다. 웰다잉을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었으며 모두 납득되는 내용들뿐이었다.

○환 : 동의하는 바이다. 우리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서 논의한 죽음 과정에서의 고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희 : 그렇다면 책에 소개된 <노인보건의 미래(The future of health and care of older people)>라는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좋은 죽음'에 대한 12가지 사항을 기록하겠다.

결론 : 우리에게 웰다잉이란?

1. 언제 죽을지 아는 것과 예상할 수 있는 일을 아는 것
2.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조절할 수 있는 것
3. 존엄성과 사생활이 인정될 것
4. 고통 완화와 다른 증상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는 것
5. 죽음이 일어나는 곳에 대한 선택과 조절이 가능한 것
6. 필요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7. 영적이거나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충족되는 것
8. 병원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든지 호스피스 케어가 가능한 것
9. 임종할 때 같이 있어 줄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것
10. 희망했던 것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전고지가 이뤄지는 것
11. 작별 인사를 할 여유가 있고 적절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
12. 떠날 때 떠날 수 있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은 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죽음이다."

활동사진



2022년 11월 25일

참가자대표 : 김○희